

투명 인사 강조하던 광주교육청 교장·교감 승진 순위 비공개 논란

올해부터 본인 순위만 알수있게 해... 인사 불만 사전 차단 의혹 제기

인사의 공정·투명성을 강조하며 승진 대상자 순위 등을 공개했던 광주교육청이 올해부터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 뒤말이 무성하다. 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안팎에서는 인사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장·교감 승진후보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를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인사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인 '광주시교육청 인사클린센터'(http://cleaninsa.gen.go.kr/)에 교장·교감 승진후보 대상자 각

20여 명의 이름·순위·소속기관 등을 올렸다. 이를 통해 대상자뿐만 아니라 교직원이면 누구나 승진 순위를 파악하고 가능할 수 있었다. 인사를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승진후보 대상자들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바꿨다.

다. 이마저도 본인의 순위만 알 수 있고 다른 경쟁 후보자 정보는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 경쟁 후보자가 누군지, 그들의 순위가 어떤지 알 수 없도록 폐쇄한 것이다. 승진 관련 정보가 비공개로 바뀌자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순위를 근거로 승진 인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시교육청이 이를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비공개 조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 문책 대상이 영전했다는 지적과 공모 때마다 내정설이 나도는 등 인사 불신이 팽배해진 것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중학교 교감은 "전화번호도 없는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막았는지 모르겠다"며 "특정인사를 승진시키려고 일부러 정보를 감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승진 후보 순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다른 시·도 교육청도 비공개로 바꾸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9분** **해질녘 18시 42분** **달돋이 10시 23분** **달지기 시론**

젖빛 하늘
오전에 비 그친 후 구름 많겠다.

구분	지역	기온
광주	하리고 기온 비	10/16℃
목포	하리고 기온 비	8/13℃
여수	하리고 기온 비	12/17℃
나주	하리고 기온 비	10/16℃
완도	하리고 기온 비	10/15℃
구례	하리고 기온 비	11/12℃
강진	하리고 기온 비	10/14℃
해남	하리고 기온 비	9/14℃
장흥	하리고 기온 비	11/16℃
순천	하리고 기온 비	11/16℃
영광	하리고 기온 비	8/14℃
진도	하리고 기온 비	9/13℃
전주	하리고 기온 비	8/16℃
군산	하리고 기온 비	7/13℃
남원	하리고 기온 비	9/16℃
홍산도	하리고 기온 비	8/12℃

〈오전〉 바다 **동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노출증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 후북서 1.5~3.0m 2.0~4.0m
 먼바다 남서 후북서

〈오후〉 바다 **동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목포 06:06 11:12
 먼바다 서~북서 1.0~2.0m 17:53 23:14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여수 00:34 06:27
 먼바다 서~북서 1.0~2.0m 12:21 18:4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날씨						
최저/최고	7/16	9/13	1/14	4/13	3/13	5/15

남구 신청사 이전 작업

내일 의회 이전 '완료'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광주 남구청(구청장 최영호)의 백운광장 신청사 이전작업이 19일 의회 이전을 끝으로 완료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청사와 신청사에서 동시에 진행된 구청 업무와 민원처리가 18일부터 신청사에서만 이뤄진다.

지상 9층, 지하 6층의 남구 신청사는 지하 2~6층에 45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1층에는 종합민원실이 들어섰다.

남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구청사와 신청사를 오가는 셔틀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개청식은 다음달 8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박정렬기자 halo@



3·15 부정선거 항의 모습 재연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일어난 3·15 의거를 기념해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당시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호남 4·19혁명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영용)는 당시 벌어진 '곡(哭)민주주의 장송 데모'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유혈 시위라며 제2회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일어난 3·15 의거를 기념해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당시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호남 4·19혁명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영용)는 당시 벌어진 '곡(哭)민주주의 장송 데모'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유혈 시위라며 제2회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옛 남구청사 부지 매각 무산

비싼 가격·부동산 경기 여파 등 응찰자 없어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옛 남구청사 부지 매각사업이 업체들의 무관심으로 일단 무산됐다. 남구는 옛 청사 부지의 입지여건이 좋아 적지 않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응찰자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14일까지 옛 남구청사 부지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낸 결과,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부지는 토지(1만8964㎡·약 5736평)와 건물(9975㎡) 등으로, 남구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공영주차장 부지 1100평에 어린이공원과 대형 도서관을 건립해 봉선동 일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남구청과 주택업계에서는 부지 가격이 비싼데다, 아파트를 건설해 수익을 내기에는 부지의 형태가 다소 부적절하고, 건축 면적도 넓지 않다는 점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입찰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유찰을 통해 입찰가가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2차 입찰은 15일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개찰일은 26일 오전 10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벌금폭탄' 완도해경, 주민 고충돕기 나서

완도군 고금면 어촌 마을 주민들의 '굴 겁대기 벌금 폭탄'(광주일보 3월 7·8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완도 해양경찰이 주민 고충돕기에 나섰다. 경찰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굴 겁대기 처리 방식에 대한 탄력적인 법적 대응 대신, 단속에만 열을 올려 60~70대 노인들에게 과도한 벌금이 부과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현실적인 해결방안 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완도해경은 최근 완도군 고금면사무소에서 김용범 서장 등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

은 무분별한 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해경이 요청해 이뤄졌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김 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단속에 따라 과도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어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해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도 "생계 차원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 제도 위주의 경향정정을 펼쳐줬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완도=정은주기자·서부취재본부장

차에어컨 연료소모 히터의 12배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등은 생각보다 적어

교통안전공단, 연비 조사

자동차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면 히터보다 연료 소모량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기타 전기장치 사용에 따른 연료비 증가 부담은 생각보다 적었다. 17일 교통안전공단이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전기장치가 연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히터 작동에 따른 자동차 연료 소모량은 시간당 50원이다. 차종은 중형 가솔린차,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천원, 에어컨 풍량은 중속으로 각각 가정해 산출한 결과다. 히터를 작동하지 않고 운전할 때보다 저온은 시간당 50원, 중온은 시간당 49원, 고온은 시간당 51원이 각각 추가로 들어갔다. 다

만 히터 풍량을 고속으로 작동하면 추가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50원으로 올라간다. 히터는 엔진의 뜨거운 냉각수를 이용해 작동하기 때문에 팬을 구동시킬 만큼의 전력량만 충분하다. 하지만 에어컨을 작동하면 중속에서 시간당 600원, 고속에서 시간당 800원의 추가 연료비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속의 경우 에어컨 사용이 히터보다 12배의 연료비를 발생시킨다.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면 200와트의 전기가 소모돼 시간당 200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들어갔다. 블랙박스는 시간당 13원, 내비게이션은 시간당 45원, 오디오는 시간당 15원, 휴대전화 충전기는 시간당 30원이 각각 발생한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삼주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로얄관광여행사 (순천 성동초교 로타리)	061)753-6788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편안한 무안출발 상품!

장가계 직행 4월01일~5월17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총 14회)

[CJPF01-FM] 장가계/월가계 4월/5월 "별마사지" 849,000원~	[CJPF01-FMA] 장가계/월가계 4월/5월 "명품호텔" 1,149,000원~
[CJPF01-FM1] 장가계/월가계 4월/5월 "호텔인그레이트" 949,000원~	[CJPF01-FMD] 장가계/월가계 4월/5월 "도드림" 1,249,000원~

단하루! 5월16일(목) 석가탄신일 3박4일

[CTPF01-CI] 대만 4일 이류*하연 "지우편" 899,000원~	[CTPF01-CIB] 대만 4일 이류*하연 "101빌딩" 1,149,000원~
[CTPF01-CI1] 대만 4일 이류*하연 "999,000원~	[CTPF01-CID] 대만 4일 이류*하연 "도드림" 1,249,000원~

하나투어 단독 크루즈 6월2일 출발!

여수·제주·상해 6일 코드 CCC820 ₩750,000원~

광주/전남 기획상품

집중모객 [JKP776-BKF] 특급호텔 숙박, 봄나들이! [국내수송포함] 일본-북큐슈 4일 부관해리 349,000원 단 하루, 4월 15일

광주/전남 기획상품 "출발확정"

[노티/국내수송포함] 베트남/캄보디아 6일 1,400,000원~	[노티/특급/국내수송포함] 서안,낙양,정주 6일 1,480,000원~	[EMQ306-KE] [유류세포함] 터키 일주 9일 "국내선 2회" 3,590,000원~
-------------------------------------	--	---

국내/제주도 상품

[AKPK73] [패키지] 제주도 3일 생생 웰빙투어/세계자연유산 318,000원~	[AKAK72-79] [자유여행] 제주도 3일 숙소+항공+렌트 포함 304,000원~
--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정보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의 받습니다. 선택장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장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일본여행업 등록 377호(서울시 중로구청) ■관광관련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 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